

北 6자회담 복귀 美 '비둘기파' 힘 받나

부시, 라이스 한·중·일 순방 성과 지켜세워

북핵 6자회담 재개 합의로 그간 숨죽여 지내온 미국 비둘기파들이 힘을 받을 수 있을지.

그간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럽스펠드 국방장관으로 대변되는 매파(강경파)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으로 상징되는 비둘기파 등 두 축으로 운영돼 왔지만 최근들어선 매파들의 목소리만 요란했다.

그러나 부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북핵 6자회담 전격 합의 소식을 듣고 "극동에서 이뤄지고 있는 진전에 매우 기쁘다"면서 "콘디(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가 극동지역에 가서 해낸 훌륭한 일에 감사한다"며 한껏 무게를 실어주면서 분위기는 반전되고 있다.

▷매파들 정국주도력 줄어들까=지난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지난 9일 핵실험 이후 매파들은 일제히 대북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데 주력했다.

미국의 압박정책 강화에 따른 '체제 내과

론'이나 북한 장성들에 의한 '궁정 쿠데타론'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 발표가 있었던 지난 달 3일 럽스펠드 국방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핵기술을 확산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라고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 초강경 보수파인 네오콘들은 "우리는 지금 김정일에게 모든 외환자금을 끊어 정권을 내부에서 파열시킨다는 아이디어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면서 "북한 정권을 내파시킬 때가 왔다"며 강경 발언을 마구 쏟아냈다.

미국의 대표적 강경파인 존 볼턴 주유엔 미 대사는 지난 24일 북한의 핵실험 직후 "안보리 제재가 북한의 핵무기 추구를 단념시키는데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다른 조치(other step)를 강구할 것"이라며 "군사적 대응"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을 했다.

▷비둘기파 발언권 강화될까=유화론자들

은 이날 부시 대통령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다. 라이스 장관의 역할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해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국민들께 다짐한다"고 한 대목이다.

이 때문에 라이스 장관과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 등 비둘기파들의 역할이 당분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6자회담 재개를 성사시킨 것도 '라이스 라인'이 체니 등 매파 라인과는 별도로 은밀히 작업한 결과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라이스 장관이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귀국한 뒤에도 힐 차관보가 중국에 체류, 미, 북,중 3국 6자회담 대표 접촉을 비공개로 가진 것도 비둘기파의 '단독 플레이'였다는 얘기도 있다.

그러나 이번에 6자회담 재개에 전격 합의했다 해서, 부시 대통령이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했다 해서 비둘기파들이 정국을 주도할 것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북핵 문제는 사안의 민감성을 감안할 때 언젠대 요동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상황은 크게 변할 개연성이 높다는 얘기도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이 백기는 숨진 이라크인의 넋" 한 대학생이 지난 달 31일 미국 콜로라도주 콜로라도 대학 캠퍼스에서 10만개의 백기가 땅에 꽂힌 운동장을 지나가고 있다. 이라크전 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이라크 민간인들의 수를 나타내는 이들 백기는 29일 '인디저너스 서포트 네트워크'팀 단체가 설치한 것이다. /AP연합뉴스

11·7美 중간선거

중 전망과 쟁점

민주 다수당 확실시...부시정책 '책임론 공방'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미 의회 권력의 주도권을 좌우하는 선거이면서 조지 부시 대통령에 대한 신임투표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난 94년 이후 12년간 이어온 공화당의 의회 장악이 계속될 지, 민주당이 상하 양원 또는 어느 한 곳의 의회 권력을 탈환하게 될 지 주목된다.

▷선거개요=이번 중간선거에선 상원의원(임기 6년) 100명 가운데 3분의 1인 33명, 하원의원(임기 2년)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가운데 36명을 선출하게 된다.

현재 의석수는 상원의 경우 공화 55, 민주당 44, 무소속 1석, 하원은 공화 231, 민주당 201, 무소속 1석, 공석 2석 등으로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를 장악하고 있다. 상원에선 민주당이 6석 이상, 하원에선 15석 이상 현재보다 더 얻어야 다수당이 될 수 있다.

하원 민주당 우세, 상원은 경합

▷선거전망=최근 언론사및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하원의 경우 민주당의 과반수 확보가 확실시되고 있다. 또 상원에선 공화,민주 양당이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당별 지지도에 있어선 민주당이 일찍부터 공화당을 크게 앞질러 왔다. 뉴스위크가 지난달 28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당장 오늘 투표가 실시되면 어느 당 후보를 찍을 것인가'는 질문에 53%가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반면, 공화당 후보는 39%(격차 14%포인트)에 그쳤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9일 하원의 경우 당선에 확실시 되는 곳은 민주당 196, 공화당 178곳, 무소속 지역은 민주당 18, 공화당 27곳이며, 16개 지역은 경합 지역으로 분류했다. 민주당으로선 경합 지역 가운데 4곳에서만 이기면 하원 다수당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이다.

▷쟁점=이번 선거에서 핵심쟁점은 단연 이라크 전쟁이다. 이번 선거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이라크 전쟁 수행에 대한 신임투표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민주당은 이라크에서 종파분쟁이 심화되면서 이라크에 미군 전사자수가 100명에 육박하는 등 사태가 날로 악화되자 '제2베트남전'을 우려, 미군의 이라크 철군을 주장하며 철군일정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및 핵실험, 이란의 핵프로그램 강행도 안보문제와 관련된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은 부시 행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대화를 거부한 채 6자회담

이라크, 제2베트남전 우려

을 고수하며 북한을 몰아붙인 게 오히려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불러왔다는 주장하고 있다. 이에 맞서 공화당과 부시 대통령측은 전일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벌게 해줬다고 비판, 양당이 '책임론 공방'을 벌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이 꾸준히 추진해온 감세정책도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감세정책이 부유층을 위한 특혜일 뿐이라며 강력히 제동을 걸 태세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유력 정치인들 핵무장론 잇단 제기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이 앞다퉈 핵무장론을 제기하고 있다. 정부나 여당에서 말고 있는 공인의 입장이 아닌 개인의 의견을 전제로 깔고 있다.

집권 자민당의 정책 사령탑인 나가사와 쇼이치(中川昭一) 정조회장은 북한의 핵실험 발표를 마치 기다리거나 한 듯이 "일본의 핵보유에 대해 논의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지난달 15일 핵보유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데 이어 미국 방문중 미 정계 요인들에게도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달 30일에는 "미사일이 날아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이야말로 핵 보유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다.

아소 다로(麻生太郎) 외상도 국회 답변 등 기회 있을 때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을 통제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핵무장론을 적극 거론하고 있다.

나가사와 정조회장이나 아소 외상 모두 정치가 개인 자격으로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제지할 움직임을 취하지않고 있다. 정부, 여당내에서 핵무장론에 대해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데도 "일본은 자유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논의를 차단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두둔하는 모습조차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곳이 댐 맞아?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이스트 자바주 케팅 섬바 마을의 주민들이 오랜 가뭄으로 바싹 말라 거북등 처럼 갈라진 댐 위를 가로질러 가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동해 '울릉분지'에 태극기 새겼다

무인 잠수정 '해미레' 동판 설치

한국과 일본이 지명 공인을 놓고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동해 독도 부근 바다 밑 '울릉분지'에 며칠전부터 작은 태극기가 휘날리기 시작했다.

1일 해양수산부와 해양연구원 등에 따르면 국내 기술로 개발된 6천m급 심해 무인 잠수정 '해미레'는 지난달 28일 북위 36도40분-동경 130도30분 지점에서

수심 2천50m까지 잠수, 동판으로 제작된 가로 23cm, 세로 13cm 크기의 태극기를 울릉분지 위에 설치하는데 성공했다.

해양과학조사선 '온누리'호에서 발진한 해미레는 수직 하강하기 시작한지 1시간 반만에 이번 실험의 잠수 목표였던 수심 2천m를 넘어서 2개의 유압식 수중 로켓팔로 태극기 설치와 시료 채취 임무를 완수하고 심해 활영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유엔 사무총장 공관 450만弗 들여 보수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취임에 맞춰 뉴욕 맨해튼의 사무총장 관저가 대대적인 개보수공사에 들어간다.

행정과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유엔 총회 제5위원회는 지난달 31일 1950년 이후 리노베이션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온 사무총장 관저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공사 계획안을

논의했다. 맨해튼 동쪽 이스트강을 바라보고 있는 57번가 끝에 자리 잡은 유엔 총장 관저는 그동안 일반적인 유지보수공사만을 실시, 건물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퇴임을 앞둔 코피 아난 사무총장도 제5위

원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관저 건물과 배관, 냉난방 시스템 등이 낡아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시급한 개보수공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개보수 계획안은 총 450만달러를 들여 건물 주요 설비를 교체하고 보안시설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원수와 같은 고위급 인사를 초청했을 때 이용하는 연회장 등을 새롭게 단장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친화적 건설기술 용역제공에 선도적 기업
(주)GA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신입 및 경력직원(설계·감리모집)

구분	직무	요건
신입	설계	1. 대학 졸업 2. 전공 관련 학과 졸업 3. 전공 관련 학과 졸업 후 1년 이상 실무 경험
	감리	1. 대학 졸업 2. 전공 관련 학과 졸업 3. 전공 관련 학과 졸업 후 1년 이상 실무 경험
경력	설계	1. 대학 졸업 2. 전공 관련 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실무 경험
	감리	1. 대학 졸업 2. 전공 관련 학과 졸업 후 3년 이상 실무 경험

(주)GA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대한민국 최대의 웨딩플래너 http://www.dream.net.kr/1491

국내·국제결혼 전문회사

상당시 전문 국제결혼 상담사 자격증 취득한 공신력 있는 회사

- ★ 국내결혼: (총혼, 재혼, 신혼) 커플맞춤식사예절교육
- ★ 국제결혼: (베트남, 중국, 몽골,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등) 한국 23개지사, 해외5개지사 결혼정보서비스

(주)웨딩스쿨 광주지사

☎ 02-382-1491 / 381-2262